

사회주택 스토리텔링 :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마을, 위스테인별내

이범수

우리 부부는 2년 반 전, 위스테인별내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세계여행을 마치고 지방에 겨우 자리 잡아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남양주 별내'라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협동조합형으로 운영되는 아파트라니. 아파트형 공동체를 지향한다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쉽지 않을지 상상이 되었다.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 짙은 탓에 마을에서 부대끼며 생활하는게 쉽지 않을 거 같다는 걱정도 했다. 마지막까지 입주 여부를 고민했다. 치열한 고민 끝에 '위스테인별내'로 이사하기로 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몰라.'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의 도시는 골목이 사라지고, 사람들간의 소통이 줄어드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아파트는 거대한 담장으로 폐쇄성을 드러내며, '집값'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각축전까지 벌어지니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 풍문은 아니다. 위스테인별내에서 2년 반을 생활해보니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커뮤니티 디자인

일본의 건축가 이토 도요는 일본의 공간의 전통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중심이 무(없음)이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는 다실, 휴게실, 수목 등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하며 다른 체험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상징과 상징 사이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위스테인별내는 가운데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7개 동이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각 공간은 이토 도요의 말처럼 사람으로 채워지고, 연결되어 풍성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핵심적인 커뮤니티시설들은 주민들이 직접 커뮤니티 공간의 용도, 구성, 운영에 관해 고민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주민들은 내가 살아갈 곳,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디자이너가 되었다. 46번의 모임을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위스테인별내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름은 '동네00'이라고 하기로 했다. 동네카페, 동네책방, 동네체육관, 동네창작소, 동네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 동네안내소(경비실). 동네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현대사회에서 입주 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더 좋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시설이나 공간 등, 외적인 부분을 보자면 다른 아파트와 큰 차이점은 없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스테인별내는 이곳에 주민들이 살면서, 운영까지 관여 한다는 점이 다르다.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부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고민이 존재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시도도 여기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점이다.

갈등조정을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위스테인별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도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에. 위스테인별내는 이런 상황들에 관해 고민을 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을 통해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층간소음, 흡연, 주차, 반려동물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만난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들은 위스테인별내에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을과 지역으로 확장성을 가지며 활동한다. 각급 학교, 경찰서 등 갈등조정이 필요한 곳에 파견되어 지역을 살리는 힐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21년에는 주민들이 함께 생각을 모았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합하여 다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위스테인별내 존중의 약속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 낸 약속이다. 그 약속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아파트 한 칸에 크게 게시해두었다. 모두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며 함께 즐거운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에도 힘을 쓰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대안을 찾는 위스테인별내만의 방식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위스테인별내

‘우리 집 00이를 보신 분을 찾습니다!’

저녁 무렵, 메신저에 알람이 울린다. 저녁 밥을 먹으러 들어와야 하는 아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다. 이내 곧 댓글이 달린다. ‘00이 □□에서 놀고 있는 거 봤어요.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 할게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스테인별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동네’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하루하루 펼쳐진다. 세상에 이런 풍경을 가진 아파트가 또 있을까? 그

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마을 내부는 최대한 단차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덕분에 15개월 된 나의 딸도 불편함 없이 마을에서 걸어다닐 수 있다. 소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은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비장애인부터 장애인까지 누구나 이 마을을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 굴곡진 잔디광장과 모래놀이터는 덤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잔디는 '관망'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붙일 거면 왜 잔디를 심어 냈을까? 아이들이 잔디광장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모래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나간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 자치회'를 만들었다. 어린이 자치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위스테인별내를 고민한다. 또 어린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네카페 앞에는 어린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동네 카페에, 아이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킥보드, 자전거 등을 주차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성된 공간이다. 아이들은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구획을 그어 모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동네카페에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의함이 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이나 불편한 점들을 적어 제출한다. 매달 '돌봄위원회'의 어른들과 '어린이자치회'의 아이들 그리고 동네지기(관리소장)와 조합 활동가가 모여 이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역시 공동체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기 힘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소통 방식과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습득한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역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생활을 통해 아이든 어른이든 같이 보고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다'는 말처럼 나도 위스테인별내에서 생활을 하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덕분에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공동체의 문제도 어른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신선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재밌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위스테인별내.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된다.

